

노동·복지

작업환경 개선·산재예방 '침범'

사업장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

서울 구로공단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주)롯데전자 제조과 여성노동자 박아무개(24)씨는 지난 20일께 허리 디스크 증세로 한달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요양을 하고 있다.

박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 4월20일께 작업 도중 휴식 시간에 머리 높이의 선반에서 자신의 손가방을 꺼내려다 허리가 '뻑'하면서부터였다.

박씨는 곧 공장 안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찾았고 산업간호사 손경선(41·여)씨의 주선으로 유급휴직 처분을 받아 통원치료를 하던 끝에 6월 중순부터는 아예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손씨가 적극 나섰고 회사쪽도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데다 치료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경우였다.

요즘 이처럼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의 역할에 높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없이 생산활동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노·사·정 모두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3백명이상업체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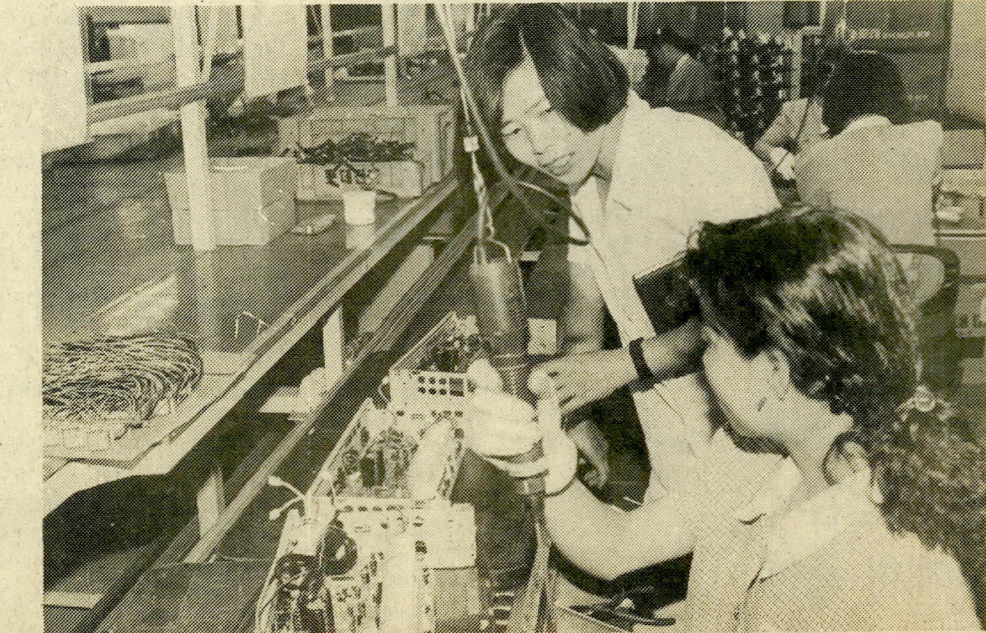
노동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업무영역도 크게 늘었다.

법규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부상 노동자의 응급처치·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 외에 △노동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조치의 건의 △보건에 관련된 보호 작업장비의 구입 때 적격품의 선정 등이다.

실제로 이 법에 따른 보건관리 활동 모델업체로 꼽히는 롯데전자의 경우는 간호사 손씨를 계장급인 실장으로 해 보건관리실을 설치한 89년 11월 이후 하루 평균 15~20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치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연간 8차례에 걸쳐 전체 노동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손씨는 또 1주일에 2~3차례씩 현장을 돌며 납땜 공정에서 국소 배기장치가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작업장의 '시아머니'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손씨는 이밖에 사원 건강진단 때는 외부 의료진에게 자신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특정 병력기록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진단의 주관점을 주문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부상 노동자의 응급처치 뿐 아니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에 까지 업무영역을 넓힐 때 산업간호사는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다. 사진은 작업현장을 돌아보는 (주)롯데전자 건강관리실장 손경선씨. <유창하 기자>

노동자 건강상담·교육등 전담
기업 아직 인식낮아 채용 28%그쳐

을 '알뜰히' 챙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결론을 이 크게 떨어지는 등 생산성 향상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게 회사쪽의 설명이다. 이 회사 민승기 상무는 "과거 간호사 1명을 총무부에 배치해 놓고 다른 잡무를 겸하게 했을 때에 비해 건강관리실을 따로 설치한 뒤 근로자들의 안정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산업계로 볼 때 이런 회사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

라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 개정 1년 만인 지난해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간호사 선임 대상업체 6천9백79곳 가운데 1천9백74곳만 산업간호사를 선임해 무려 71.7%의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 결근 크게 줄어

그나마 산업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산업장조차 건강관리실이 비좁고 진료용 물품 구비율이 낮은 데다 간호사가 다른 잡무를

검해 맡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회(회장 임옥순·39)가 지난해 9월 전국의 산업간호사 2백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조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건강관리실의 53.7%가 10평 미만으로 비좁았으며 20평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춘 곳은 18.9%에 지나지 않았다.

진료물품으로는 끓은 상처를 간단히 치료할 때 쓸 메스가 53%밖에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진료용 침대가 52%, 의료기기를 소독하는 데 필수적인 자외선 소독기도 50%밖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간호사가 다른 잡무를 겸해 맡고 있는 경우도 18.6%로, 이들은 일반 사무실에서 문서정리·타이핑 등의 다른 업무를 하다가 환자가 오면 건강관리실에 가서 치료를 하는 실정이라서 직업병 실태조사나 예방활동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 관련학과 증설 추진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되는 이런 현상은 비록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돼 있는 경우일지라도 간호사의 회사 안에서의 직급이 낮을 때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구로공단 ㄱ기업 건강관리실 간호사 김아무개(28)씨는 "처음 1년쯤은 각종 실태조사와 시정전의를 해보았으나 회사쪽의 무신경에 부딪쳐 이젠 찾아오는 환자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앞의 같은 조사에서 산업간호사의 41.5%가 촉탁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돼 있고, 또 전체의 66.5%가 3년 미만 경력의 20대 초임 간호사들로 충원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회사쪽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없을 경우 작업환경 개선활동을 펴기 어렵게

산업간호사회 회장 임 옥 순씨

"사업장에 적정규모의 건강관리실을 갖추고 유능한 산업간호사를 두는 것이 노동자 건강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산업간호사회 회장 임옥순(39·사진·인천 삼광유리 건강관리실)씨는 이제 기업들도 노동자의 건강이 모든 생산활동의 원천이라는 극히 평범한 출

인터뷰

정 기준 정도라도 산업간호사를 확충하고 업무영역을 보장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 '최일선' 의료진이란 점에서 노동

업주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정 의무불이행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간호사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확충하는 노력을 보일 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임씨는 의사의 경우 산업보건 전문의 자격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간호사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직무교육 등 연수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 등을 개



"노·사 모두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낮은 실정이라서 일을 해갈수록 새로운 할 일이 태산처럼 많아짐을 느낍니다."

지난 74년에 경북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 종합병원에 근무하다 84년 9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의 직장에 들어가 올해로 건강관리실 근무 8년째를 맞고 있다는 임씨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건강 신경쓰면 연2조 손실막아"

발점으로 되돌아갈 때가 됐다며 기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소부터 노동자 건강관리에 '작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면 연간 2조6천9백억원(90년 노동부 통계)에 이르는 직업병 및 산업재해에 따른 국민경제의 손실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씨는 이를 위해 최소한 법

자들의 1차 보건진료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씨는 특히 이미 배치된 산업간호사들조차 상당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부상 환자의 응급처치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선 평소의 보건교육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이 필수적인데도 이런 건의를 아예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기

전책으로 제시했다.

임씨에 따르면 산업간호사회는 87년 '산업보건간호사회'로 창립됐다가 그 뒤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전국 12개 지부에 9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들이 받는 월급 등 처우는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편이며 한 곳에서 장기근속 하더라도 대부분 승진 혜택이 없는 편이다.

돼 있다.

일선 간호사들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장은 심지어 법정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산업간호사를 두고 있을 뿐 실제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기초적인 의무실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실태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이 안정된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인데도 사용자들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앞으로 4백22명으로 늘어 법정 의무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산업보건 관련 학과의 증설을 추

진하는 한편,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과정을 만들어 부족한 산업보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창식 기자>

요즘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닥터 노먼 베쑨'를 읽어보라고 권한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권하는 法頂스님의 추천서 값5,800원

닥터 노먼 베쑨

캐나다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세계 20개 언어로
출판